

측정도구의 개발과 활용①

과학적 실천가의 시대

오늘날은 '과학적 실천가(scientific practitioner)'의 시대다. 과학적 실천가는 전문적인 조사능력을 활용해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실천가를 의미한다. 전문적인 조사능력을 갖추게 되면 자신의 업무성과를 객관적인 측정을 통해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에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측정도구를 직접 개발해야 하는 이유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측정도구에 관한 것이다. 일단 서비스를 제공했고, 성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객관적 자료로서 증명할 수 있는

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우선 다음의 사례를 통해 현장 사회복지사들이 측정도구를 선택하고 사용할 때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사례#1이 가장 전형적인 경우이다. 동료나 직장 상사가 예전에 사용한 설문지를 그대로 베끼는 것이다. 이 경우의 문제점은 기존의 설문지가 과연 좋은 도구인지에게 대한 검토가 없어서 만약 문제 있는 설문지라도 그냥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례#2의 경우는 그나마 좋은 도구를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방법이라 볼 수 있다. 이 방법을 통해 좋은 측정도구를 찾게 되면 다행이지만, 실제 이 방법의 문제점은 막상 자신의 프로그램 내용에 적합한 도구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논문에서 사용한 측정도

평가를 위한 측정도구 개발

사례#1

초임 사회복지사 K씨는 자원봉사담당 업무를 맡게 되었다. 그는 연말에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서 작년도 내부보고서 문서를 찾아본 후, 작년 설문지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K씨는 이래도 되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그냥 예전 것을 사용하였다.

사례#2

대학원을 나온 사회복지사 S씨는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형제간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형제 관계를 연구한 석박사 논문들을 찾아보았다. 왜냐하면 보통 논문의 부록에는 설문지가 나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주제를 연구한 논문을 찾기가 어려웠다. 대신 다른 논문에서 '또래 관계 척도'를 발견해서 문항의 내용 중 '또래'를 '형제'로 고쳐서 사용하였다. S씨의 고민은 자신에게 적합한 측정도구를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비슷해 보이는 도구를 선택해서 문항을 고치게 되었다.

구는 대부분 외국의 측정도구를 번역한 것이다. 따라서 그 내용이 우리 실천 현장과 잘 맞지 않거나, 남이 번역한 것을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목적에 맞게 문항을 수정함으로써 원본의 내용이 훼손된 것이 많다는 점이다. 도구가 번역된 것이라면 원본으로부터 충실히 번역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바쁜 사회복지사들이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다.

한편, 최근 측정도구 사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척도집이 국내에 발간되기 시작하였고, 외국에서는 이미 20-30년 전부터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척도집에서도 여전히 자신에게 적합한 측정도구를 찾기가 힘들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외국 척도집의 경우 직접 번역을 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측정도구의 번역은 일반 외국어 번역과 달리 양쪽 언어 및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프로그램 내용에 적합한 측정도구를 직접 개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이 방법이 거의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측정도구를 개발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고, 측정도구를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해 사회복지사들이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지면을 통해 측정도구 개발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준거에 대한 이해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준거' 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에 대해 설명하겠다. 준거를 모르면 측정도구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준거(criterion)의 사전적 의미는 '의사결정을 위한 기준, 규칙' 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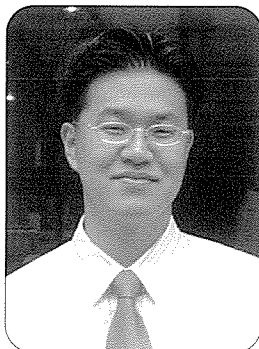
에서 원조과정을 실행할 때, 사정(assessment) 혹은 평가(evaluation)단계에서 클라이언트나 지역사회 문제 및 기능을 평가한다. 이 때 평가에서 사용하는 기준이 바로 준거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회복지사가 학교폭력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면 프로그램 종결 후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 때 프로그램이 성공적이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여기서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학교폭력 발생건수', '폭력가해자의 비행점수' 등이 있다. 이러한 기준들을 준거라 한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준거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준거는 클라이언트 변화(혹은 서비스 목표)와 관련된 행동, 결과, 성과를 의미한다.'

측정도구를 왜 개발하는가? 그것은 평가의 '준거' 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프로그램 평가에서 준거가 중요한 것이지, 측정도구 자체가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니다. 측정도구 자체에만 집착하다 보면 도구 선택의 폭이 제한되지만, 준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준거로 적합한 다양한 도구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상담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어떤 측정도구를 사용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된다면, 각종 심리척도(공격성, 비행, 자존감 등)에만 집

중하게 되지만, 준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면 이러한 심리척도 이외에도 학교폭력 발생건수, 프로그램 참여자 수, 참여유지 기간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평가자는 준거로 쓰기 위해 측정도구를 찾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준거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는 준거의 타당도이다. 타당하다는 것은 준거의 내용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목표와 관련성이 있어야 함을 뜻한다. 둘째는 준거의 신뢰도이다. 신뢰도가 높다는 말은 측정점수를 얻을 때 오차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점, 여러 평가자, 여러 개의 문항들을 사용해서 측정을 하면 된다. 세 번째는 준거의 실용성이다. 아무리 좋은 준거라 하더라도 현장의 사회복지사가 쉽게 사용할 수 없다면 실용적 가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준거를 사용하든지 간에 타당도, 신뢰도, 실용성의 관점에서 선택해야 할 것이다.

다음 시간에는 준거로 활용되는 다양한 측정도구들을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실제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안내할 것이다. 



조성우

(사회복지사, 성균관대 박사수로, congruence@hanmail.net)

(전) 충청복지관 사회복지사 근무

(현) 성균관대 박사수로, 성균관대/서울신학대 강사

연구 : 이혼가정자녀의 행동적응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과

아동의 이혼지각 분석, 청소년 자원봉사만족도 척도개발 등

저서 : 사회복지실천과 척도개발(학지사),

사회복지조사연습(청목출판사) 등